

민
정
실

음
진
천

BUDDHANARA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부처님 오신날 7일 기도 입재
 셋째주 일요일 10시 30분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및 기도 회향
 넷째주 일요일 11시 5월 인등기도 법회
 다섯째주 일요일 특별 야외 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
 깊은 명상에 드신 부처님,
 조용하고 흔들림이 없는 부처님,
 출가(出家)에서 기쁨을 얻으신 부처님,
 천신들도 이런 부처님 되기 원하네.

Even the gods long to be like the Buddhas who are awake and watch, who find peace in contemplation and who, calm and steady, find joy in renunciation.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5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부처님 탄생성지, 룸비니를 가다

“곧 룸비니에 도착한다”는 안내인의 소리에 가슴이 설렜다.

여러 번 순례했지만 항상 가고 싶었던 ‘그 곳’ 룸비니. 이리 저리 기회를 재다 며칠 전 비행기를 탔다.

부산에서 홍콩으로, 홍콩에서 네팔 카트만두로 가는 직항을 이용했다. 어제 밤은 카트만두에서 보내고 오늘 아침(1월 8일) 룸비니 가는 차에 몸을 실었다. 카트만두를 빠져 나오는 높은 고개를 넘어 6시간 정도 달린 것 같다. 차창 밖으로 보니 룸비니 주변은 옛날과 별 차이가 없다.

1월 초순이라 날씨는 덥지 않다. 거리의 나무들은 여전히 싹싹해 보였다. 문득 고개를 돌리니, 저 멀리 나무 우거진 숲이 나타났다. “룸비니에 오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입구에서 내려 걸어 들어갔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도착했지만, 막상 보니 주변 풍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거대한 마야당이 새로 건립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번 왔을 때 마야당 주변은 한창 해체. 발굴 중이었는데.... 당시 마야당에는 관광객의 출입이 통제됐다. 그래도 몰래 들어가 ‘부처님이 탄생하신 장소’라는 뜻을 보던 기억이 새롭다. 마야부인이 싯다르타를 낳는 탄생상도 룸비니 입구에 있던 가건물에 모셔져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 지은 마야당 벽 한 가운데 봉안돼 있다.

경건하게 참배하고, 마야당 북쪽에 있는 아쇼카 석주(石柱. 돌기둥)를 보러갔다. 석주 서쪽에는 출산한 마야부인이 목욕했다는 사각 연못도 그대로 있고, 연못 옆의 큰 보리수나무도 여전히 있다. 아쇼카 석주를 손으로 만졌다.

찬드라굽타의 손자이자 전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마우리아 왕조 제 3대왕 아쇼카(재위 기원전 269?232)는 정복전쟁의 비참함을 목격하고 불교로 개종했다. 개종한 그는 교단에 많은 것을 기증했으며, 수많은 불탑을 세우고, 중인도 마투라 출신의 우파굽타스님의 권유를 받아들여 불적(佛跡)을 순례했다. 즉위 20년 후 룸비니를 참배한 아쇼카왕이 부처님 탄생지에 세운 것이 손 짚고 있는 이 석주다.

아쇼카왕이 석주를 세우지 않았다면, 인도 불교유적은 제대로 보존되지도, 발굴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아쇼카 석주 덕분에 불교유적임으로 파악된 장소가 한 두 곳이 아니다. 룸비니를 포함해 바이샬리의 대림중각강당터, 코삼비의 고시타 아라마터 등 곳곳에서 불교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다.

연못을 지나 거대한 보리수나무 밑에 가 앉았다. 시원한 그늘에 누워 자고 싶었다. 나무에 기댄 채 ‘룸비니의 의미와 역사’를 생각했다. 지금으로부터 2628(2548+80)년전 사월 초파일. 네팔 타라이 지방 룸비니 동산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마야데비를 어머니로, 석가족 족장이자 카필라바스투의 왕인 쉼도다나를 아버지로 태어난 소년. 싯다르타 태자가 바로 그다. 후일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동남아시아, 파키스탄, 중국,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 세계 곳곳에 ‘연기’ ‘중도’ ‘무아’의 가르침을 펼친 사람. 전쟁과 정복이 아닌 설득과 설법으로 ‘자신의 가르침’(불교)을 세계 각국에 전파시킨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절대 신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억압적인 계급제도로부터 사람들을 구제하며, ‘어리석음(무명)’으로부터 중생들을 해탈시킨” 그의 탄생을 〈불본행집경〉 〈방광대장엄경〉 〈수타니파타〉 등 많은 경전들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마명(馬鳴)보살(2세기)은 불전(佛傳)문학의 백미 〈붓다차리타〉에서 “왕후 마야부인은/ 아기 낳을 때가 온 줄 스스로 알고/ 룸비니 동산의 편안하고 훌륭한 자리에 눕자/ 백 천 시녀들은 왕후를 모시었네. 때는 사월 팔일/ 맑고 화한 기운 고르고 알맞은데/ 그는 재계하고 깨끗한 덕 닦았기에/ 보살은 오른쪽 옆구리로 나셨도다/ 큰 자비는 온 세상을 건지려 하였기에/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았나니. ... (중략) ... 환하게 태에서 나타나는 것/ 마치 처음 오르는 해와 같았다”고 묘사했다.

물론 “현재의 룸비니가 경전에 나오는 룸비니인가”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이 점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룸비니 동산에 아쇼카 석주가 세워져 있고, 석주에 ‘이곳이 부처님이 태어난 룸비니 임’이 기록돼 있다.

1896년 독일출신 고고학자 푸러박사가 이곳을 발굴하던 중 아쇼카 석주를 발견하고, 룸비니 동산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석주 머리 부분은 손상돼 없어지고, 중간엔 낙뢰로 생긴 균열이 있지만, 다섯줄의 브라흐미 문자(고대 인도의 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천애희견왕(아쇼카왕)은 관정 20년 지나 친히 여기에 와 참배했다. 붓다 샤카무니가 탄생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로 울타리를 만들고 석주를 세우게 했다. 부처님이 이곳에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룸비니 마을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 생산의 (6분의 1 대신) 8분의 1 만을 지불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현재의 룸비니와 달리 과거의 ‘룸비니’는 어땠을까.

5 세기에 이곳을 방문한 중국 법현스님(399~414 인도순례)은 <불국기>에서 “성(카필라성)의 동쪽 50 리에 왕원(王園)이 있는데, 이름은 논민(論民. 롬비니)이라고 한다. 마야부인이 못에 들어가 세욕(洗浴)하고 못을 나와, 북쪽으로 못가를 걷기를 20 보, 손을 들어 나뭇가지 잡고 동향하여 태자를 낳았다. 태자는 땅에 떨어지자 7 보를 걸었으며, 두 용왕이 태자를 목욕시켜 준 곳이 있다. 이 욕처(浴處)는 뒤에 우물로 변했고, 부인이 세욕한 못은 지금도 여러 스님들이 항상 그 물을 펴 마신다”고 적고 있다.

법현스님 보다 200 년 뒤 롬비니를 찾은 당나라 현장스님(600~664) 역시 <대당서역기>에서 ‘황폐한 롬비니’를 사실적으로 그렸다.

“전천(箭泉. 화살의 샘)의 동북쪽 80~90 리 지점에 롬비니 동산이 있다. 석가족 사람들이 목욕하던 못이 있는데, 물이 맑고 깨끗하여 거울처럼 비치며 온갖 꽃들이 어우러져 있다. 그 북쪽으로 24~25 걸음 걸어가면 무우수(無憂樹)가 있다. 지금은 나무가 시들고 말았지만 이곳은 보살께서 태어나신 곳이다....”

신라 혜초스님(704~787)도 8 세기 이곳을 찾았다. <왕오천축국전>에는 “롬비니 근방은 숲이 무성하고 길에는 도적이 출몰하기에, 순례자는 방향 잡기가 무척 어려우며, 길을 헤매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13 세기경 네팔에서 인도의 불교유적, 특히 붓다가야의 금강보좌 참배를 목표로 순례한 티벳 스님 다르마스바민은 여행기에서 롬비니 관련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8 세기 이후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롬비니는 문헌에서 사라지고, 잊혀진 존재가 됐다. 그러나 1896 년 12 월. 독일 출신의 고고학자 푸리가 현재의 롬비니에서 아쇼카 석주를 발견하며, 다시 세상에 등장했다.

롬비니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끈 시기는 1967 년 4 월이다. 당시 유엔 사무총장 우 탄트(U Tant)가 롬비니를 방문해 “위대한 성인이 태어나신 이곳을 세계 공유의 종교.문화.관광을 위해 개발하자”고 제의했던 것. 1970 년 4 월 아시아 13 개국이 뉴욕에 모여 롬비니국제개발위원회를 결성하고 사업안을 마련했다. 마야당을 중심으로 약 2 백 30 만평의 넓이에 성스러운 정원, 롬비니 센터, 문화센터, 승원 등을 세운다는 내용이었다. 현장에서 보니, ‘성지 롬비니’ 불사가 마무리되려면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롬비니는 불교도만의 성지는 아니다. 여기서 태어난 한 소년이 나중에 발견한 진리가 인도.중국.동남아.동북아 등 거대한 지역에 퍼져, ‘새로운 세계’를 열었고, 인류의 역사.문화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가 강조한 “나는 오직 이 생에 있어서 마땅히 일체를 건져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할 구절이다. 동양에서 불교적인 것을 없애버렸을 때 남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일몰(日沒) 즈음 대성석가사에서 걸어 다시 롬비니를 찾았다. 오후에 본 인상과 달랐다.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새 들은 지저귀고, 꽃은 아름답게 피어있었다. 석양에 그림자를 길게 드리운 아쇼카 석주는 훨씬 다정해 보였고, 시대를 뛰어 넘는 성인이 태어난 곳다운 풍광이 롬비니 동산에 드리워져 있었다. 싯다르타에 대한 경외심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겼다. 일몰 즈음 롬비니에 가 보라고, 가서 한 시간 정도 가만히 앉아 있다 돌아오라고, 모두에게 권하고 싶다. -혜충스님-

어떻게 사는 것이 부처님처럼 사는 것인가

“탐진치로 오염된 삶의 방식 이웃위한 원력으로 전환해야”

올해도 어김없이 부처님오신날이 찾아왔다. 부처님오신날은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 이 땅에 나투신 부처님을 찬탄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자비롭고 고귀한 존재가 되자고 다짐하는 날이기도 하다. 어떻게 살아야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부처님처럼 살려면 먼저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을 알아야 한다. 동학사 승가대학장 일초스님은 “생로병사의 굴레에 허덕이는 중생을 목격하고 ‘삶은 괴로운 것’임을 깨우친 부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나’의 부귀영화를 훌연히 버리고 출가, 고통의 원인에 대해 탐구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곧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살펴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

6 년간 고행과 선정 끝에 부처님은 “나와 삼라만상이 서로 연기적으로 얹혀 있음에도 영원불변한 실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집착이 중생을 아프고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불녕사 승가대학

강사 상일스님.” 이런 깨달음은 구체적으로 초기불교에서 ‘탐진치 삼독의 지멸(止滅)’이란 개념으로 심화된다.

탐욕(貪).성냄(瞋).어리석음(癡)은 중생을 불행하게 하는 치명적 ‘병균’이다. <아함경>, <구사론> 등 초기불교 경전 및 논서에 따르면 탐욕은 집착과 갈애(渴愛)를 낳는다. 무언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소유대상의 유한성으로 말미암아 탐욕은 언젠가 좌절당하게 되고, 좌절을 맞본 이는 분노와 증오에 몸서리친다. 고통의 원인이나 발생과정에 대한 성찰없이 탐욕과 성냄을 반복하며 어리석음에 젖어 있으면, 고통의 악순환에서 한 걸음도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숫타니파타>에서 “모든 고통은 집착으로부터 시작된다”며 “그러나 이 집착이 소멸해 버리게 되면 그에 따라 고통도 없어진다”고 설했다.

결국 부처님의 설법대로 “탐진치를 없애야 행복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금강율원 학감 설오스님은 “사성제(四聖諦) 가운데 고의 원인인 집제(集諦)를 좀더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탐진치엔 모든 존재와 현상이 독립적 개체라는 시각과 배타적 자기중심주의가 저변에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소유하고 싶은 대상이 실제하고, 그것을 원하는 내가 실제하며, 내가 가져야지 남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다.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 있는 현실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연기적 유기체임을 외면하고 독립적 개체임을 강변하는 사회다. 사람들은 ‘맞당아’ 있기보다 ‘맞서’ 있으며, 법과 제도는 이런 반(反)자비적 행태를 부추긴다(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세영스님).”

“전투적 경쟁과 성공을 미덕이라고 추켜세우며 최소한의 법만 준수하면 어떤 비도덕적 행동도 용인된다(이정호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사무처장).”

세계 각지에서 자행되는 착취와 억압, 전쟁과 테러도 나의 행복이 남의 고통으로 직결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윤리의 타락에서 연유한다. 이런 맥락에서 도법스님(전 실상사 주지)은 “부처님은 타자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무장해 싸우지 않고 자비와 참회로 세상의 갈등을 해결하려 했다”며 “하루하루 살림살이에서 평화를 구현한 부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요컨대 “탐진치는 나 혼자만 잘 살려다 보니 걸리게 되는 덧(통도사 승가대학장 우진스님)”이다. 정병조 교수(동국대 윤리문화학과)도 “불자라면 탐진치 삼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소멸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팔정도를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견(正見)’과 ‘정정(正定)’이 요구된다. ‘정견’은 ‘바른 견해’로 사성제와 연기법(緣起法)을 올바르게 이해해 바른 인생관과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고통을 행복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처님은 세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을 바꾼다. 곧 하늘이 없으면 거기에 떠다니는 구름도 찾아볼 수 없듯, 세계가 따로 떨어지지 않고 연기적으로 엮여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가 없으면 ‘나’도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다. 원광대 차차석 강사는 “연기법을 깨달으면 성공해야 할 자라도 경쟁해야 할 상대도 없어지니, 인생과 세계의 불행은 행복으로 거듭난다”며 “‘인식의 대전환’이 공생의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탐욕은 대상에 대한 감각에서 출발한다. 곧 감각으로 느껴지는 현상과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볼 줄 알아야 삼독에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는 온갖 대상과 현상에서 즐거운 감각, 피로운 감각,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감각 등을 느끼고, 이것은 ‘갖고 싶다’ ‘피하고 싶다’ 등의 욕망(탐욕)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설령 즐거운 감각이라 해도 그



무상성으로 인해 곧 사라지고 사라짐에 집착하면 좌절하게 되니,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될 따름이다.

부처님은 <초분설경>에서 “삼독의 불이 무상하고 생로병사와 우비(憂悲), 고뇌가 다 무상하다. 너희는 마땅히 알라, 온갖 존재가 무상함을!”이라고 역설했다.

사진설명: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은 마음 속의 여러 번뇌와 애욕을 극복할 때 가능하다. 사진은 애착을 상징하는 마왕의 공격을 물리치고, 성도하는 부처님의 모습. 파키스탄 페샤와르박물관 소장. 1~2 세기 조성.

이를 위해 ‘정정’이 필요하다. 정정은 ‘바른 선정’으로 정정 무념무상의 마음상태를 갖는 것으로 선정(禪定)에 의한 정신의 통일을 의미한다. 선정은 존재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 그 실상만큼만 느끼고 탐욕과 노여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선정을 통해 생각과 감각의 멸진정(滅盡定)의 상태에 든 사람은 탐진치를 완전히 없애고 최고의 즐거움을 누린다.

지환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은 “탐진치 삼독으로 오염된 삶의 양식을 청정자비의 원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부처님처럼 사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탐진치를 떨하고 단 한순간도 방일하지 않는 선한 삶이 부처님의 삶이었다”며 “그렇게 살아야 나와 타인을 자유와 행복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안옥선(전남대 철학과 강사)씨의 주장도 이와 같은 선상에 있다.

실천없는 진리는 공허하다. 김용표 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탐진치 삼독의 소멸로 인식의 대전환을 이뤘다면 이를 바탕으로 행동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사섭법을 비롯, 사무량심, 오계의 실천 등이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꼽았다. <반야경> 등 대승불교 경전에서 나타나는 사섭법(四攝法)이란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도록 불법에 귀의시키고자 할 때, 보살이 행하는 보시섭.애어섭.이행섭.동사섭 등 4 가지 방편을 일컫는다.

<반야경>에 따르면 ‘보시섭(布施攝)’은 남에게 조건없이 베푸는 것이다. 보시엔 물질적 도움을 주는 재(財)보시, 불법을 가르쳐주는 법(法)보시, 미혹과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無畏施) 등이 있다.

재보시엔 한계가 있지만, 법보시는 무한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씨앗이므로 법보시가 재보시보다 상위에 놓인다. 무엇보다 내면에 있는 불성을 깨우쳐 자긍심을 복돋아주고 공포와 무명의 질곡에서 해방시키는 무외시(無畏施)가 최고의 보시로 평가된다.

분명한 건 보시는 ‘자선’과 다르다는 점이 이덕진 교수(창원전문대)는 “삼독을 그쳐 나와 너의 경계를 지웠듯이 보시에도 대가를 기대해선 안 된다”며 “보시를 주고받는 관계는 근본적으로 공하고 청정해야 무한한 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을 착취하지 않고 돕고 아끼는 데 힘쓰는 것”이 바로 보시라는 것이다.

‘애어섭(愛語攝)’은 부드럽고 인자한 말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 ‘세치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반면 말 한 마디가 천냥빚을 갚기’도 한다. 중생을 따르도록 하는 일은 보살의 사명이므로, 보살은 자애로운 말로 포악한 사람도 온순하게 하고, 절망과 비애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과 환희를 선사해야 한다. ‘이행섭(利行攝)’은 말뿐만 아니라 행위로 중생에게 ‘실제적’ 이익을 베푸는 것이다. 보살은 몸과 말과 뜻, 세 가지 행동으로 중생을 이롭게 한다.

사섭법 중 나머지 세 가지를 아우르는 덕목은 ‘동사섭(同事攝)’으로 중생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섭법 가운데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으로, “중생의 병이 다 나아야 내 병이 낫는다”는 유마거사의 말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삼라만상이 서로 연기적으로 존재하므로 중생이 사경을 헤매면 중생과 연결된 나의 몸도 치료될 수 없다’는 것으로 동사섭은 분별심 없는 행동이다.

곧 “동사섭은 내면화된 연기법으로 불법에 대한 이해가 완성됐을 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행동양식”(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림스님)이다.

물론 삼독의 절제와 마찬가지로 사섭법에도 미혹과 고통으로부터 지혜와 원력으로의 ‘인식의 대전환’이 전제돼야 한다. 동화사 승가대학장 해월스님은 “중생계를 바라보는 부처님의 자비가 구체화된 것이 사섭법”이라며 “무턱대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제대로 익히고 실천해야 참다워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강경과 함께 역사 속으로>의 저자인 김광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운영위원장은 “지혜와 자비의 분리를 극복하고, 지행합일의 수행을 추구하는 보살의 삶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경전엔 일상 속에서 사섭법을 실천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법화경> ‘상불경보살품’에 나오는 상불경(常不輕)보살은 그 이름대로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들에게 항상 예배했다.

사부대중이 멀리 있어도 쫓아가서 칭찬할 만큼 상불경보살은 ‘애어섭’에 철저했다. 사부대중을 예배.찬탄하는 이유를 “나는 그대들을 경만하게 생각하지 않나니, 그대들은 다 반드시 성불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경전 한 구절 알지 못했지만 불제자로서의 삶은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이해하고 행동했던 것이다.

법산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이는 ‘내 손가락’이라고 할 때 열 손가락 모두가 내 손가락이듯, 중생을 내 부모 자식처럼 여긴 부처님의 정신을 본받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삼독을 버리며, 사섭법을 실천하는 게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다.

“‘우리가 곧 나’, ‘네가 없으면 나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뭇생명에 대해 감사하고 섬기며 이것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매순간 표현되는 삶이 곧 부처님의 삶이다”(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해주스님).

법주사 승가대학장 철운스님도 “신분 고하와 신체장애를 막론하고 모든 중생을 제자로 받아들인 평등의 화신이 부처님”이라며 “이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의 소산이며 우리도 이와 같이 깨닫고 정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도소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술집에서 웃음 파는 엄숙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없는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꽃밭에서 활짝 웃는 아름다운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전 조계종 종정 성철스님의 1986년 초파일 법어의 일부다. “사회의 소수자와 미물마저 존경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진치를 버리고 사섭법을 실천하는 삶이며 부처님의 길(박인성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이다. -불교신문에서 -

- 부처님이 오신다면...

내가 머물고 있는 사운당(四雲堂) 뜰에는 지금 불두화(佛頭花)가 한창이다. 그 은은한 향기가 방문을 열 때마다 바람결에 흩날린다. 꽃의 모양이 부처님의 머리를 닮은 불두화. 올해에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만개한 불두화는 마치 봉축을 기념하는 꽃 같다.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부처님은 무우수(無憂樹) 꽃향기 가득한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다. 무우수 향기가 얼마나 신비로웠으면 마야왕비가 감동하여 손을 뻗었을까. 부처님이 탄생하는 순간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땅은 은은히 진동하였다고 한다. 그 꽃길을 따라 부처님은 일곱 걸음을 걸으시고 한 손으로 하늘을, 또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위대한 선언을 하셨다.

모든 세상이 고통 속에 잠겨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막 태어난 아기가 걸음을 걷고 사자후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 장면은 상징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이 세상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과 원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인데, 이른바 원생(願生)이다. 그 원력은 다름 아닌 중생들을 고통 속에서 구제하겠다는 대자비심이다.

이에 견준다면 우리 범부들의 모습은 업의 인연으로 태어나는 업생(業生)이다. 업생은 잘못된 과거의 습관에 이끌려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윤회를 되풀이한다. 그래서 늘 고통이 존재하고 시비 질투가 끊이지 않는다. 자신이 부처이면서, 그 부처를 알지 못하고 미망을 헤매는 중생들이 얼마나 안쓰럽고 애닦아 보였을까. 그러므로 중생을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중생 곁에만 머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여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이리라. 다시 말해 본래 구족되어 있는 자기 안의 부처를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원력화신(願力化身)으로 나투신 것이다.

부처님은 가장 극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신 분이다. 세상에 나자마자 어머니의 죽음과 직면하게 되고, 젊은 시절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 곁을 떠나며, 노년에는 임종을 슬퍼하는 제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생의 모습을 통해 애착과 슬픔에서 자유로울 때 해탈과 열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알고 보면 우리 삶은 드라마 각본처럼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이 때로는 삶을 고통스럽게도 하지만 삶의 극적인 장치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다행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상황을 반전시킬 때 삶의 본질과 더

가까워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를 일러 ‘삶의 리얼리티’라고 말한다.

다시 이 땅에 부처님이 오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마도 삶의 리얼리티를 강조하실 것 같다. 누구나 고통스런 삶을 원치 않지만, 번민과 슬픔을 당당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기쁨과 슬픔에도 집착하지 않는 인생이 부처님의 삶을 실천하는 자의 참 모습이다.

또한 부처님은 중도(中道)의 삶을 말씀하실 것이다. 중도의 사고는 어느 쪽에도 손을 들지 않는 적당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적인 양극을 부정하고 가장 합리적인 자주적 행동 양식을 뜻한다. 그러므로 중도는 독선적인 주장보다는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조용한 대화에 가깝다. 우리 사회에 가득 차 있는 대립과 갈등은 오직 중도의 가르침만이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실 것만 같다.

산창을 열고 불두화를 마주하고 있으면 5월의 녹음이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 햇살은 눈부시고 산새소리 청아하다. 마치 내 마음 속의 아집과 욕심을 놓으면 본래의 부처가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하다. 아무래도 이 좋은 5월에 불두화가 앞다투어 피는 것은 부처님 오신 뜻을 전하고 싶은 2600년 전 룸비니 동산의 그 꽃향기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

- 현 진 스님/ 해인사 포교국장-

美 뉴욕에 ‘간화선 바람’ 일으킨다

안국선원, 맨하튼에 ‘뉴욕분원’ 개원

미국 뉴욕 도심 한복판에 간화선(看話禪)을 대중화하기 위한 선원이 들어선다. 재단법인 조계종 안국선원(선원장 수불스님)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뉴욕 맨하튼에 분원(分院)인 ‘뉴욕안국선원’ 개원식을 개최한다.

뉴욕안국선원은 안국선원이 선불교의 미국 내 대중화를 위해 추진해 오던 프로젝트로 5년 전 개원한 미국 휴스턴안국선원에 이은 두 번째 분원형태 선원이다. 선원장 수불스님이 평소 교민포교와 함께 현지민들에게도 선불교를 대중화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던 것을 현실화시킨 것이며, 특히 선원이 뉴욕중심가인 웨스트 29번가에 위치하고 있어 불자들의 접근도가 용이해 뉴욕불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안국선원 신도 박법륜화 보살이 소유하고 있던 5층짜리 건물 중 40평 규모의 5층과 옥상에 선원이 들어서며 법당과 지대방, 공양간으로 활용된다. 뉴욕안국선원은 개원에 앞서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선원장 수불스님을 법사로 ‘간화선 수행 특별지도’강좌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복불교 중심인 현지교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화선 지도와 수불스님의 인터넷 동영상 법회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현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불교 관련 특별강좌도 다수 개최해 일본 티베트 대만 불교 중심의 미국 내 불교지형도에 새로운 변화를 줄 각오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 안국선원은 지난해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불교를 공부한 미국인 강사를 초청해 영어불교강좌를 듣는 ‘국제선법팀’을 결성해 해외불교에 대한 관심을 높여왔으며, 앞으로는 일요일법회도 외국인스님을 모시고 진행하기로 했다.

김성부(金盛夫, 64, 법명 隱庵) 서울안국선원 홍범운영팀장은 “현각 무량스님 등 많은 외국인 스님들이 불교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사회에서 실제 그 파급력은 크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면서 “뉴욕안국선원의 개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 성지-룸비니, 보드가야, 사르나트, 쿠쉬나가라

불교의 4대 성지는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네 곳을 가르킨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난 룸비니, 정각을 이룬 보드가야(붓다가야), 처음으로 법을 설한 사르나트(녹야원), 열반에 든 쿠쉬나가라 등을 불교의 4대 성지라 말한다. 초기경전에서는 불교도에게 4대 성지를 순례할 것을 권했다. 팔리어 〈열반경〉, 〈유행경〉,

〈대반열반경(법현 옮김)〉 등은 직접적으로 4 대 성지를 방문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산스크리트어 〈열반경〉 등에서는 부처님 일생의 4 사건을 회상함으로써 얻는 공덕은 4 대 성지를 방문함으로써 얻는 공덕과 똑같다고 하고 있다.

이들 4 대 성지를 돌아보는 성지순례는 부처님이 열반에 든지 200 여년 후인 아쇼카왕 시대에도 성행했다. 아쇼카왕 비문을 살펴보면 아쇼카왕이 룸비니, 보드가야, 사르나트를 방문했다고 한다. 또 4 대 성지에 10 만 금(金)을 희사했다고 한다.

후대에 내려오면서 앞의 4 대 성지에 기원정사가 있던 ‘쉬라바스티’, 부처님이 도리천으로부터 내려온 곳이라는 ‘샹카쉬야’, 부처님의 교화활동이 특히 두드러졌던 ‘라자그리하’와 ‘바이샬리’를 더해 8 대 성지라고 한다. 이 가운데 샹카쉬야를 제외하고 모두 부처님이 성도 후 주로 활동했던 곳이다. 하지만 8 대 성지에 대해 다르게 말하는 자료도 있다. 한편 중국에는 관음성지인 보타나가산, 지장성지인 구화산, 보현성지인 아미산, 문수성지인 오대산 등 4 대 성지가 생겼다. 우리나라도 양양 낙산사, 남해 보리암, 여수 향일암, 강화 보문사 등이 중요한 관음성지로 손꼽힌다.

법회소식 NEWS

- 그동안 많은 신도님들의 연등 제작 동참으로 부처님 오신날 연등 제작 불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작된 연등은 7 일 기도후에 일년간 법당에 모십니다. 신도님들은 본인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들에게도 2549 년째 맞이하는 연등불사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권선해 주십시오. 본인도 불사에 동참함은 물론이고 이웃들에게 동참하게 하는 것은 부처님전에 무량한 복을 쌓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 관등 모연문”은 사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참금은 미국에서는 50 불이고 한국에서 동참하시는 신도님들은 5 만원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영가 일년 연등도 동일하게 50 불입니다. 형편이 되시는 데로 1 인 1 등을 하실 것인지 가족등으로 한 등을 커실것인지는 신도님들 각자가 결정해서 동참해 주십시오.
- 5 월 둘째주 일요일에는 2549 번째 맞이하는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서 7 일기도 입제가 있습니다. 2 부법회에서는 각자가 만든후에 집에 가지고 가실수 있는 애기 연등 만들기도 갖습니다.
- 셋째주 일요일에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 및 관불의식 등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날 법회는 10 시 30 분에 있습니다. 착오들 없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도 올해에는 세인트루이스 오케스트라 플루트 연주자로 활동 하였던 Mr. 존 마크놀티의 부처님 오신날 축하공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점심공양은 사찰 가든에서 가든파티를 합니다. (날씨 사정에 따라서 공양 장소는 실내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 5 월에는 5 째 주가 있어 특별야외법회가 있습니다. 이번 야외법회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이은 뒤풀이 개념의 봄소풍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장소는 Missouri 중부에 있는 Maramec Spring Park 이며 5 째 주 일요일 10 시에 사찰에 모여 출발할 예정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Maramec Spring Park 은 St. Louis 에서 Highway I-44 를 타고 서쪽으로 1hr 40min 거리에 위치한 Missouri 의 4 대 Trout park (송어 양식장)중의 하나입니다.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 Spring 으로 인해 물이 차고 깨끗하여 산책, 캠핑과 낚시 등을 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후회없는 봄소풍이 되리라 믿습니다.
- 4 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30 번 지영훈, 269 번경주유인 김 홍순 영가, 270 번 김해 유인 김 석량 영가.
-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 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
- 현재 불국사에서서는 지붕 불사 모연을 하고 있습니다.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 성불하십시오. -
- 부다나라 템플(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BUDDHANARA TEMPLE)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